



벨기에, 유로 2020 예선 6연승 질주 벨기에의 케빈 더브라위너(노란색 유니폼)가 10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헨던 파크에서 열린 스코틀랜드와의 유로 2020 예선 1조 6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37분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다. 벨기에에는 1골 3도움을 기록한 더브라위너의 활약에 힘입어 스코틀랜드를 4-0으로 꺾고 6연승을 질주, 1조 선두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한가위 선물 ‘손흥민 골’ 기대해볼까?

<14일 밤 11시 EPL 홈경기>

추석 연휴 스포츠 이벤트 쏘아보니
전남 영암서 ‘명절의 꽃’ 장사씨름
프로야구 막판 치열한 순위 싸움
K리그 상주 상무, 전북과 빅 매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국내외에서 풍성한 스포츠 이벤트가 팬들을 찾아간다.

모래판 위의 최강자를 가리는 ‘위더스제약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총 200여 명이 참가하는데 남자부는 태백급(80kg 이하)과 금강급(90kg 이하), 한라급(105kg 이하), 백두급(140kg 이하) 4개 체급에서 일인자를 가린다. ‘씨름판의 꽃’ 백두급에선 디펜딩 챔피언 서남근이 타이틀 수성에 나서는 가운데 ‘명절 장사’로 불리는 장성복과 올해 음성대회 백두장사 정경진, 영월대회 백두장사 장성우도 우승을 노린다. 여자부도 총 3개 체급의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를 벌인다. 모든 경기는

무료 입장이다.

축구에서는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2019-2020시즌 1호 골 사냥이 특히 관심을 끈다.

손흥민은 추석 다음 날인 14일 밤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홈 경기를 준비한다. 지난 시즌 막바지 퇴장의 여파로 이번 시즌을 늦게 시작한 손흥민은 대표팀 합류 전 리그 두 경기를 소화했으나 아직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개막전 승리 이후 3경기 무승에 그친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은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계속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12~13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 kt wiz의 ‘한가위 대전’이다.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걸린 2위를 두고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벌이는 싸움도 흥미진진하다. 두산은 승차 없이 승률에서 키움보

다 0.004 앞서 2위를 달린다.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는 K리그1이 14~15일 이어진다. 선두 전북 현대(승점 60)는 14일 오후 7시 상주 상무와의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그 18경기 무패를 노린다. 승점 1점 차로 바짝 뒤쫓는 2위 울산 현대(승점 59)는 경남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두 탈환에 도전한다. 3위 FC 서울(승점 47)은 아산 무궁화에서 전역한 미드필더 주세종과 이명주가 복귀한 가운데 인천 유나이티드를 불러들여 최근 4경기 무승 탈출을 꿈꾼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인 KEB하나은행 코리아오픈(총상금 25만 달러)은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코트에서 막을 올린다. 해마다 추석 연휴와 가까운 시기에 열려 ‘한가위 클래식’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대회는 올해도 연휴 기간인 14, 15일에 예선을 치르고 16일부터 본선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 편집=박재윤 기자

“한국 경계 대상 양현종·김현수” 日 야구대표팀 감독 KBO 관전평

일본 야구 대표팀 이나바 아쓰노리(47) 감독은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 중 투수로는 양현종(KIA 타이거즈), 타자로는 김현수(LG 트윈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스포니치 등 현지 매체들은 10일 “아쓰노리 감독이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를 살펴본 뒤 양현종과 김현수를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이나바 감독은 3일 대전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전을 시작으로 총 4경기를 관전한 뒤 9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3일 한화전에 선발 등판한 양현종의 투구 모습을 지켜봤는데, 당시 양현종은 6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1자책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나바 감독은 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LG의 경기에서 김현수의 모습도 살펴봤다. 당시 김현수는 2타수 무안타로 부진한 뒤 교체됐다.

이나바 감독은 “한국은 일본이 우승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가을 정취 속에서 ‘스포츠 축제’ 내달 13일 ‘올림픽데이런’ 개최

대한체육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인 ‘2019 올림픽데이런’이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다.

서울과 한강변을 달리는 마라톤(5km/10km), 올림픽 종목 체험, 가상현실(VR) 체험, 신수지·양준혁·이정용 등 대한체육회 홍보대사와 올림픽 스타가 참여하는 팬 사인회, 노라조·10센치와 함께하는 애프터 파티 등이 마련됐다. 참가비는 1만5000원이며,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 티셔츠와 스티커, 스포츠 짐색 등 기념품과 ‘올림픽데이런 키트’를 준다. 연합뉴스

듀이트리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스페셜 기프트 세트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위한

달팽이활력케어

듀이트리
— DEWYTREE —

- 피부 탄력
- 주름 개선
- 광채 피부
- 피부결 개선

듀이트리 베스트 제품들을 이제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쇼핑몰 WA-Mall에서 만나보세요.

www.dewytree.com | 듀이트리 소비자 상담실 070-7707-1150